

제91차 이사회 이모저모

○...한국생약협회 통상 제91차 이사회가 7월10~1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삼해인 호텔에서 개최됐다. 총31명중 25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이사회는 도지회장들도 함께 참석 연석회의로 진행.

12대 회장 수입금 3천5백만원 조정

○...12대 회장 수입금은 3천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 "단계적으로 삭감해 나갈 방침이라면 우선 5천만원 정도로 조정하자"는 안도 있었으나 회장 수입금 형성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고 또 차기 회장의 부담금 완화 차원에서 그같이 결정된 것이다.

○...하계수련대회 개최건과 관련해서는 밀양 열음골 행사와 연계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남의 행사에 더부살이로 끼치는 안될 것"이라는 것이 이사들의 중론. 그러나 하계수련대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사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소요예산 자금출원 문제에 있어서는 난색을 포함으로서 사실상 올 수련대회 개최는 어려울 듯.

○...제5회 전시행사 개최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이견이 분분. 이문섭부회장은 "수련대회를 굳이 하계에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전시회와 심포지엄을 겸해 추계수련대회를 개최하는 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절충

협회창립 30돌 의미 되새겨



안을 제시.

판매위주 전시회 탈피 회원들 인식전환 촉구

○...남기철 이사는 "전시회는 과거 판매위주의 행사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이제는 우리 생약재를 홍보하고 수입약재와 비교 전시 국산약재의 품질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시행사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하기도.

○...한편 백문기 이사는 "판매행사를 도외시한 순수 전시회 만으로는 전시회 개최 의미가 없다"며 "과거 얻은것도 많았지만 부작용도 심했던 전시행사는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 결국 방송홍보 문제와 기타 소요경비 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후에 개최여부를 결정기로 했으며 전시회개최 여부에 대한 세부사항 결정은 차후 지회장회의를 통해 재거론기로 일단락.

도지회장 중앙이사 당연직

○...각 도지회장의 중앙이사 당연직건도 별 무리없이 원안대로 통과. 단 이사 임기는 3년이지만 지회장직을 도중 사임할 경우 이사직도 자동 사임하게 된다.

김동균 고문에 감사패 전달

○...이번 이사회 개최일인 7월10일은 한국생약협회가 창립된지 30돌을 맞은 기념일이기도 해 더욱 감개무량. 제주도 2박3일 일정의 이사회 경비를 제공한 김동균 고문은 환영사를 통해 "본인이 생약협회 제주도 지부장직과 중앙이사 임명을 받은 때가 혈기왕성한 40대 였다"고 회고하고 "어느덧 30주년을 맞은 우리 협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갈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중앙회에서는 김동균 고문의 환대에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와 함께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제주도 우근민 도지사 김태환 시장 축전보내와

○...한편 제주도에서 열

린 이번 91차 이사회에는 제주도 우근민 도지사와 김태환 제주시장이 축전을 보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품질 생약 생산을 위해 애쓰시는 협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늘 회의가 우리 생약의 경쟁력을 높이는 훌륭한 방안들이 개진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회>

사람과 사람사이



8월24일 회장단 회의 9월 초순 지회장 회의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오는 8월24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제5회전시회 및 심포지엄 개최여부에 관한 건과 9월 29일부터 10월3일까지 개최예정인 △한의학 국제박람회 참가의 건 △서울시 지회 설립건 △회비 장기체납자 처리건 등이다.

이어 9월초순경엔 동 안건으로 전국도지회장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임명]

△이영화 중앙공판장 과장→차장으로 승진(99년7월1일부) △전주시 덕진구 공판장장 강용운(7월31일부)

[신규 중앙회원]

△노두연(서울 강남구 자곡동 440-101) △배효길(경북 의성군 의성을 원당리 1137-18) △박용순(채취회원, 인천시 남구 주안동 1461-3)

[면직]

△서울 종로구공판장장 최상규 △인천 남동구 공판장장 윤양의(7월22일부) △충남 연기군지부장(7월26일부) △경남 김해시지부장 김만식(7월28일부)

[명의변경]

△김혁 광주광역시 동구 공판장장→여수시 남구공판장장(7월24일부) △김중수 경남진해시 공판장장→진해시 지부장(7월28일부)

[내방]

△양승우(규제개혁위 경제2분과위원) △이동필(규제개혁위 전문위원) △곽대중(규제개혁위 전문위원) △류충렬(규제개혁 구심의관실 과장) △양홍석(규제개혁 구심의관실 사무관) △한대석(한국식품개발연구원) △임현언(농림부 채소특작과 사무관) △박상표(복지부 한의약담당관실 사무관) △김성한(수급조절위원장) △최용두(고려한약유통공사 대표이사) △이종용 명예회장 △송경태 고문 △정형모 부회장 △허성무 부회장 △박종연 이사 △조상현 평택시지부장 △이인기 포천군지부장 △정영석 금산군공판장장 △신현석 경기도 양평군지부장 △박영기 전 생약전문위원 △임창수 교보생명 차장

중앙회원모집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우리 생약에 관심있는 모든 분

- 혜택:1. 생약재배기술지도
2. 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3.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5%할인
4. 생약정보제공(한국생약보)
5. 단체보험가입혜택 부여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본부비치)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증명사진 2매

회비:

4만6천원(연회비 3만6천원, 가입비 1만원)

가입문의:

협회사무국 전화 02)967-8133

생약보를 구독하려면

한국생약협회는 그동안 생산농민과 소비자 여러분들께 생약재배기술과 시세동향 등 다양한 생약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회보인 한국생약보를 월1회 발행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신청으로 온나라가 금융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저희 협회도 거품빼기식 예산절감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회원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무료로 생약보를 보내드렸으나 발송비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부득이하게 98년 4월부터는 협회 중앙회원이 아닌 경우 연간 발송료 명목으로 소정의 구독료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생약보를 보내드리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약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협회사무국(TEL:967-8133)으로 연락, 구독신청하시기 바람에 연간발송료(1만원)도 함께 보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의에 보답기 위해 저희 한국생약보는 보다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약전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계좌번호 : 제일은행 158-10-010071 ●
- 예금주 : 한국생약협회 ●
- 문의전화 : 967-8133, 969-6875 ●